

두산아트랩 공연 2026 ⑧

손현규

슬픔과 멜랑콜리 혹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외로운 조지

326(목)~328(토) 목금 7시 30분 / 토 3시 @두산아트센터 Space111

기획 두산아트센터

원작 박본 『박본 희곡집』(박본 글, 고정희 번역, 오즈의마법사, 2018) 중 「슬픔과 멜랑콜리 혹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외로운 조지」

연출영상 손현규

출연 김시유

아트디렉터 유주영

조명디자이너 손민영 / 조명프로그래머 김초현 / 조명팀 김병희 이건우 김초현

음악감독 정준규 / 음향감독 유성식

연출부 황경욱 고건영(영상 오퍼레이터) 김이수(영상·음향 오퍼레이터)

프로덕션 무대감독 유성엽

전시 관람 순서

“이 존재는 오랜 시간 동안 관찰되어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또한 기록하셔도 좋습니다.

이 존재는 오랫동안 그렇게 소비되어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존재는 이미 아주 오랜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 시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 시간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편이 더 오래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은 자유롭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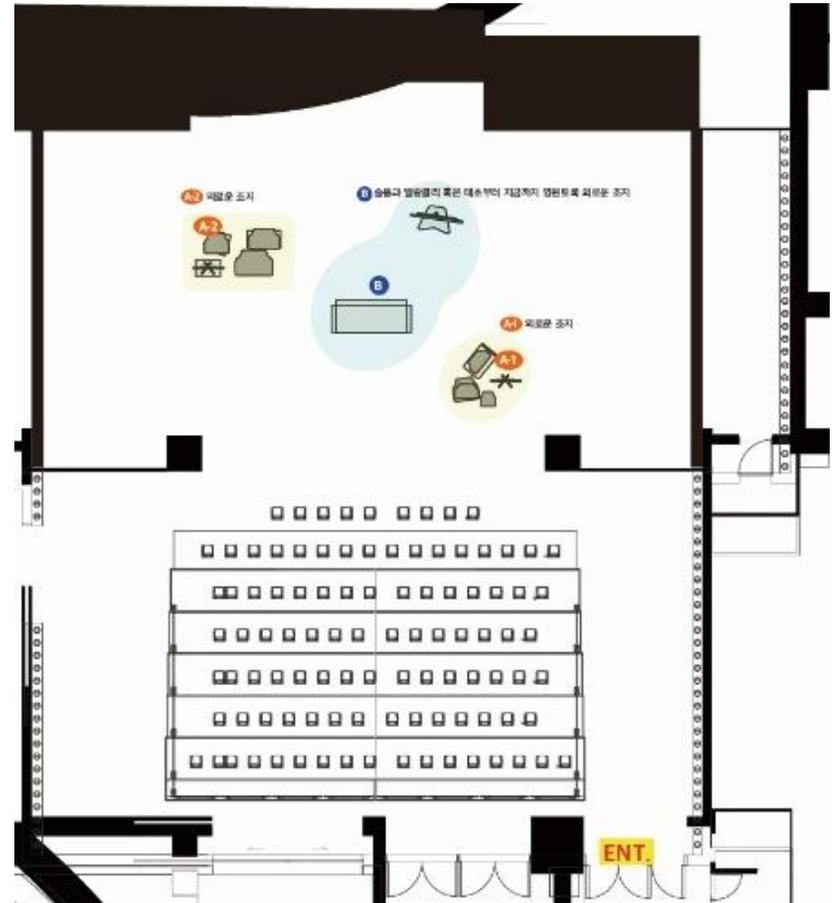
다만, 당신의 시선은 남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두산아트랩은 관객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공연 관람 후 온라인 관객 설문에 참여해 주세요.

작성해주신 의견은 창작자에게 전달되어

작품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창작 노트

“고독한 조지는 거대한 거북이다.

그가 무대에 등장한다.

수억 년을 산 거대한 거북이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로 무대에 오른다.

잠시 숨을 돌린다. 그리고 날카로운 소리로 포효한다. 그리고 한숨을 쉰다.

그리는 동안 몇 분이 흐르고, 몇 시간이 흐르고, 몇 주가 흐르고, 몇 년이 흐른다.”

※ 이 문장은 원작 [슬픔과 멜랑콜리 혹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외로운 조지]에서 가져왔습니다.

1.

<슬픔과 멜랑콜리 혹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외로운 조지>는 극작가 박본의 동명 희곡을 원작으로 하며, 인간과 전혀 다른 시간 감각을 가진 존재의 시선을 통해 세계를 바라보는 작품입니다. 이 텍스트를 사건 중심의 서사로 재현하기보다는 ‘한 존재를 관찰하는 ‘공연’이라는 방식으로 재해석하고자 했습니다. 관객이 이야기를 따라가기보다, 아주 긴 세월을 살아온 생명이 세계를 감각하는 방식을 가까이에서 목격하는 경험에 더 가깝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조지라는 거대한 존재는 무대 위에 쌓인 여러 대의 TV와 소파를 통해 나타납니다. TV 화면은 때로

조지의 신체 일부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가 살아온 시간을 비추는 창처럼 작동합니다.

이 공연은 거대한 존재를 사실적으로 재현하기보다, 배우와 오브제, 영상 이미지가 함께 작동하며 한 생명의 시간과 멜랑콜리를 형성해 가는 무대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관객은 이야기를 따라가기보다 긴 세월을 살아온 존재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2

이 작품을 통해 관객이 어떤 메시지를 명확히 이해하기보다, 아주 오래 살아온 한 존재를 마주하는 시간을 경험했으면 합니다.

‘외로운 조지’는 인간보다 훨씬 긴 세월을 살아온 존재입니다. 그는 그 시간 속에서 수많은 변화와 상실을 겪으며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슬픔과 멜랑콜리를 계속 안고 살아갑니다. 관객이 그 생명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동안 우리가 흔히 피하려 하거나 빨리 벗어나려고 하는 감정들, 이룰데면 고독이나 우울 같은 감정들을 조금 다른 속도로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우울이나 슬픔을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의 조지는 그 감정 속에서 아주 긴 세월을 살아온 존재입니다. 관객이 조지를 지켜보는 시간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감정들을 조금 더 천천히 바라보는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잠시 멈춰 서서 무언가를 가만히 바라보는 조용한 시간이 되기를.

“저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에 관심을 두고 작업해왔습니다. 재난 이후의 세계나 극한의 조건 같은 비일상적인 설정을 자주 사용해 왔지만, 그 세계를 재현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제 관심은 언제나 그 안에 놓인 인간에게 있습니다. 특히 판단을 미루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가 어떤 계기로 변화하는지, 한 인간의 사고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결론에 이르는지를 따라가는 데 오래 머물러 왔습니다.

작업을 거듭할수록 하나의 질문이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무엇을 더 보여줄 수 있는가 보다, 무엇을 끝내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연출을 하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장면을 남기고 무엇을 덜어낼 것인지, 무엇을 배우의 몸에 맡기고 무엇을 설명하지 않을 것인지는 결국 연출가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선택의 결과 이후가 아니라, 판단이 형성되는 순간 자체를 더 가까이 바라보는 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조건 속에서 인간이 어떤 책임을 받아들이게 되는지, 그리고 그 사고의 시간을 무대 위에서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지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연극은 어떤 결론을 보여주는 일이 아니라, 한 인간이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을 함께 통과하는 일에 더 가까워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가능한 한 오래 바라보려 합니다.”

- 손현규, 두산아트센터에서

손현규의 이전 작업들은 창작집단 꿀 인스타그램(@kkl2014)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산아트랩 공연 2027 공모 안내]

일정 2026.5.4~2026.5.28

대상 40세 이하, 한국 국적 예술가, 장르 제한 없음
*자세한 내용은 추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두산아트랩은 40세 이하 젊은 예술가들이 새로운 작품을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슬픔과 멜랑콜리 혹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외로운 조지

Traurigkeit & Melancholie oder der aller aller einsamste George aller Zeiten

영원히 계속 될 슬픈 음악이 들린다.

음악이 아무리 슬퍼도 조지만큼 슬프지는 않다.

음악은 조지에게 닿지 않는다.

조지의 슬픔과 멜랑콜리는 인간의 상상을 벗어나는 곳에 속하기 때문이다.

조지의 슬픔과 멜랑콜리는 우리의 상상을 벗어나는 세계에 아주 우울하게 존재한다.

우리가 아는 그 어떤 우울함과도 같지 않다.

조지는 그의 종족 중 마지막 남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세월이 변하고 또 변하는 동안 마치 나이트처럼 굵은 주름이 하나둘 깊이 새겨졌다.

한 세기, 한 세기 그의 이마에 새겨졌다.

조지는 모든 것을 경험했다.

모든 것이라면 좀 거창하기는 하다.

그러나 조지 역시 거창한 존재이다.



외로운 조지

LONESOME GEORGE



1971년 핀타 섬에서 처음 발견된 핀타섬땅거북의 유일한 개체인 외로운 조지(Lonesome George)는 몸길이 약 2m, 체중은 약 200kg인 갈라파고스땅거북의 아종이다.